

광주호 호수생태원으로 가을나들이 오세요

구절초·꽃무릇 등 만발... 12일 왕버들음악제·풍류남도 달빛공연

광주호 호수생태원(복구 충효동) 일원에 꽃무릇, 구절초를 비롯한 야생화와 코스모스가 만발해 탐방객을 유혹하고 있다. 먼저 호수를 배경으로 하얀 구절초 언덕이 넓게 펼쳐진 가을 풍경이 압권이다. 또 호수생태원의 인기 포토존으로 손꼽

히는 메타세쿼이아 산책길에는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빨간 꽃무릇이 가득하다. 수로 옆에서는 은은하게 핀 가우라와 연보랏빛으로 물든 꽃병의 꼬리, 별개미취 등 가을녘에 피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호숫가를 따라 마련된 산

책길에는 은빛 억새가 풍성해 가을의 소리를 듣는 듯하다. 또 9남매 왕버들, 황지해작가작품, 도보다리 재현시설, 누리길 등 광주시가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텝프루어 코스도 둘러볼 만하다. 광주시는 오는 12일 왕버들음악제(오후 4~7시, 호수생태원 앞 원형광장), 풍류남도 달빛공연(오후 7~9

시, 무등산생태탐방연수원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가을 야생화는 10월까지 계속 만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까운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둘러보며 추억을 만들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꽃무릇 단지.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구절초 단지.



리모델링 마친 지원2동 작은도서관 1일 광주시동구 지원2동 어린이들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지원2동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동구는 올해 예산 1억4000만원을 투입, 지원2동과 학운동 작은도서관을 편백나무로 시공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꾸몄다.

광주과학기술원에 인공지능대학원 설치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2023년 석박사급 인재 양성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도 인공지능대학원 공모사업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종 선정됐다. 1일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핵심기술 및 고도의 학술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상반기에 카이스트(KAIST), 고려대, 성균관대 3개의 대학원을 선정했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폭발적인 시장 수요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대학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정부에 설명하는 등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5년간 국비 9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금년 하반기에 전임교원 확보와 개원 준비과정을 마치고, 2020년부터 매년 50명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해 2023년까지 200명 이상의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세계적인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

'하늘이 열린 날, 한국 곰의 날' 캠페인 생태설명회·야생동물보호 실천 홍보

우치동물원 내일...카자와 공동

광주 우치동물원과 사단법인 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개천절을 맞아 3일 오전 10시30분 우치동물원 곰사 앞에서 '하늘이 열린 날, 한국 곰의 날' 공동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단군신화로 친숙한 우리나라 곰을 통해 시민들에게 멸종위기동물을 보호 및 환경보전, 동물복지 인식 확산, 실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동물행동공부화 시민 공개 및 담당사육사가 발달가슴곰 특별생태 설명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물행동공부화는 제한된 공간에 있는 동물들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줄여주고, 야생에서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동물행동공부화프로그램은 서식환경, 먹이, 감각, 인지, 사회적 등 크게 5개로 구성됐다.

또 우치동물원 등은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실천방법으로 도토리, 밤, 잣 등 줄지 말기 등을 홍보하고, 관람객에게 '한국 곰의 날'을 알리기 위한 배너를

설치·운영한다. 3일부터 6일까지는 카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한국 곰 관련 퀴즈 정답과 동물보호 메시지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멸종위기동물 디자인 제품을 증정하는 카자(KAZA)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관련 내용은 우치동물원 내에 설치되는 행사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진택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단군신화 이야기가 속 곰과 연관된 동물보호, 멸종위기동물 복원 등의 메시지가 광주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하늘이 열린 날, 한국 곰의 날' 행사와 야생동물 및 환경보전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곰은 전 세계 8종이 있으며 한반도에는 반달가슴곰과 불곰, 2종이 서식한다. 불곰은 한반도 북부(평안북도 및 함경도 일부)에서만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곰'은 반달가슴곰이다. 반달가슴곰은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보호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산의 미래와 도시철도 2호선' 세미나

광산경제포럼 4일 수완행정센터

광주 광산구 미래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경제세미나가 오는 4일 수완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산경제포럼' 부설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광산의 미래와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주제로 연구위원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도시철도분야에 임영길 교통공학박사를 비롯해 문화도시분야에 이승권 조선대학교수 및 산업경제분야에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한다.

또한 식전행사로 수완동의 주부동아리인 '에그리나' 팀의 난타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광산경제포럼'은 광산구를 대표하는 비영리경제활동단체다. 그동안 풍영정전 수질개선 분야 및 비아동 시외버스간이정류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재웅 전략기획부장은 "지역경제 현안분야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광산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10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광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10월 한 달간 5개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및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징치 또는 과징금(최대 2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14~25일 일자리우수기업 공모

고용실적·고용유지율 심사

2년간 금융·행정 등 인센티브

'2019년 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차용수업법에 따라 운영징치 또는 과징금(최대 2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관외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자 차액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빙송광고비 할인제도 등 모두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월)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증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건명	임의매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 (감정원 :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목록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감정가		토지:19835㎡ (6000.088평)		합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